

개강연기 학업손실 “EBS가 책임져요~”

전국 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교육 공영방송 EBS가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손실 최소화에 나섰다.

EBS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 비상대책단(비상대책단)’을 긴급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비상대책단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BS, 교육지원 비상대책단 가동 교과과정 2.8만개 콘텐츠 제공 온라인 가정 교육 시스템 강화 수업 결손 등 학업손실 최소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되는 등 수업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EBS가 보유하고 있는 초중고 교과과정 기반 2만8000여 개의 콘텐츠(초등 4200여 편, 중학 5800여 편, 고교 1만8000여 편)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EBS의 모든 사이트 초기화면을 전면 개편해 24일 오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비상대책단은 아울러 학생들이 EBS 학습 콘텐츠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준비해 사이



EBS 온라인 교실 /EBS

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교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학습콘텐츠를 구성하고 학급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도 구축해 학교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특별 생방송 진행, 프로그램 긴급 편성 등을 통해 실시간 교육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등 EBS의 모든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EBS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학교안전 맵’을 제작해 EBS의 모든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 공공도서관 등 2만 4000여 개의 교육관련 시설과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칭시켜 지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운영된다.

EBS 김명중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교육부, 해외 한국어 교육에 126억 투자

지난해 66억 보다 올 90% 상향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 개설, 교재·교과서 개발

교육부가 올해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에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1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추진계획(안)’을 24일 발표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은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에 한국어반이 첫 개설된 이래,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30개국 1635개 학교에서 14만500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은 전년도 66억원 대비 올해 90% 상향된 126억원이다. 특히 한국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40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한국어 교재와 교과서 개발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한국어 신규 채택을 희망하는 과테말라, 라트비아 등 8개국과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미얀마, 라오스 등



김정숙 여사와 나라펀 태국 총리 부인이 지난해 9월2일 태국 방콕 차트리움 호텔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관을 마친 후 간담회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신남방·신북방 지역 4개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 한국어 교과와 학년별·수준별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국가의 체계적인 한국어 반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국어 교원 파견 200명, 현지인 교원의 방한 몰입연수를 250명까지 확대하고, 10개 현지 대학내 한국어 교원(강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작년 대비 140% 증가한 132명의 한국어 교원 자격(한국어교원 2급 이상) 소지자를 파견하고, 체재비도 20% 상향했다.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교원 중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현지 6개 대학 내

에 한국어 교육 학위과정이나 1년 미만의 단기과정 개설도 지원한다.

베트남 하노이, 말레이시아 등에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인 한국교육원을 신설하고,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폭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필고사 방식에서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개편하고, 출제 방식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변경하며, 말하기 평가도 신규 도입해 평가체계 완성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2019년 기준 37만5000명에서 2022년 7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용수 기자

대졸 신입연봉 大 4118만원, 中 2840만원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졸 초봉(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자 기준, 기본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불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공기업·공공기관은 전일제 정규직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 했다.

조사결과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 보다 1.4% 인상된

수준이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올해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올해 공기업/공공기관의 전일제 정규직 신입 연봉은 평균 368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국립소방연구원 소방연구개발 협업 맞손

한성대학교는 지난 21일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연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방산업 첨단 기술 교류와 소방 R&D 체계화를 추진하고 관련 인재양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성대는 4차 산업 ICT 첨단 기술 분야인 AI·IoT·VR/AR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소방과 안전에 관한 실용 교육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 소방과 안전을 주제로 한 첨단 기술 개발과 콘텐츠 등을 포함해 글로벌 선진 소방 안전 연구기틀을 마련하고 정부나 민간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 주도 추진한다. /한용수 기자

기업 90% “불황에 신규 채용 부담스러워”

10곳 중 9곳 “불황 작년보다 심해” 채용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키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불황을 체감하고, 신규 채용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사람인이 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불황 체감과 인건비 부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5%는 ‘불황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91.5%는 지난해에 비해 불황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차이 없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불황으로 인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도 89.7%였다. 이로 인해 달라진 변화는 ‘채용 규모 축소’(39.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채용을 잠정 중단함’(34.1%), ‘경력직 채용 비중 높임’(25%), ‘사내추천 활용’(11.5%), ‘인턴 등 채용 전 검증체계 강화’(9.7%), ‘수시채용 확대’(9.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고 응답한 기업(134개사)들은 불황이 아닐 때에 비해 채용 인원을 평균 40.7%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의 81.8%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할 대응책으로는 ‘임금 동결’(30.6%, 복수응답)을 선택한 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규모 축소’(25.5%), ‘상여금 축소 또는 지급 중단’(24%), ‘인원 감축’(23.4%), ‘채용 중단’(19%), ‘야근 및 휴일 특근 금지’(17.5%), ‘구조조정 등 인원 감축’(11.9%) 등이었으나, 12.8%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 기업의 62.6%는 인건비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70.5%, 복수응답), ‘매출 하락 및 성장세 둔화’(39.5%), ‘인건비 외 고정비 증가’(23.6%),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추가 인력 고용’(17.8%), ‘숙련 인력 유출로 1인당 생산성 악화’(6.2%) 등을 들었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정수초교에 ‘한옥형’ 교실 착공

학생들이 일상에서 한옥건물을 경험하도록 서울정수초등학교에 신한옥형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정수초등학교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옥교실을 건립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옥교실 사업 구상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옥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보급화를 목적으로 제안했고, 서울시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2018년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지난해 기획과 설계가 진행돼 24일 착공, 올해 8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성 부지와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설계, 시공 일체를 담당한다.



서울정수초등학교에 건립되는 한옥교실 조감도

한옥교실은 지상2층 연면적 345.77㎡ 규모로, 서울정수초 기존 교사시설과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지상 2층의 본체와 특별활동에 사용하는 단층의 사랑채, 전체를 연결하는 주 통행로인 전면 회랑으로 구성된다. /한용수 기자

종로학원, 27일까지 휴원

종로학원은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25일~27일까지 3일간 휴원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연장 여부도 회의를 통해 추가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학원 일부학원은 앞서 3월1일까지 휴원을 발표했고, 학교 개학이 3월9일로 연기되면서 일주일 간 학습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종로학원 각 학원은 휴원 기간 동안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강 후 보충,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해 재수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휴원 기간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지만 학생들의 학습 상황과 동선을 각 담임이 자가격리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추후 학원 복귀시 대비키로 했다. /한용수 기자